

한국불화 거장의 삶과 작품세계 조명

국립광주박물관 '금융 일섭'전

불상·단청 등 불교미술 선구자
1920년부터 500여차례 불사

부처님 오신 날 특별전
18일부터 7월 1일까지
18일 학술대회·토론회도



▶ '치성광불과 복두칠성'

불상, 불화, 단청 등 불교미술 전반에 능한 승려를 '금어(金魚)라 한다. 일반적으로 불화(佛畵)를 그리는 화승을 호칭한다.

금어라는 명칭의 어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설은 전해온다. 부처님이 극락의 연못에 금어(金魚)가 없는 것을 보고 현세에 부처상을 그리는 사람은 내세에 금어로 환생시켜주겠다고 한데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금세기 한국 불교미술을 이끈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금어는 금융 일섭(金濟 日燮·1900~1975)이다. 그는 1913년 순천 송광사에서 출가했으며 1918년 불교미술에 입문했다. 이후 1920년대 중반부터 불화와 불상, 단청, 개금 등 불교미술의 모든 분야에 종사한 대표적인 금어다. 1975년 입적할 때까지 전국을 무대로 총 500차례의 불사를 행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특별전 '금융 일섭 -근대 부처를 만든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적인 불상, 불화와 함께 작업에 사용한 밑그림과 불상 틀 등을 소개하고 일섭 스님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됐다. 1부 '전통에서 배우다'에서는 조선 말기에 활약했던 스승들과 함께 만



'부처'

든 일섭의 초기 작품을 소개한다. 일섭은 1918년 처음 불화를 그리기 시작한 후, 그림을 배우기 위해 전국을 돌며 스승을 찾아 나섰다. 평생의 스승이 된 보응 문성(1867~1954)을 만나 제자가 된 후에도 여러 선배 화원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불상, 불화, 단청 등 불교미술의 모든 분야를 전수받았다.

2부는 '근대 불교미술계를 이끌다'로, 스승에게서 독립해 불교미술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근대 불교미술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살폈다. 일섭은 1935년 김재 금산사 미륵불 조성 일찰에 참여하고 1938년 조선불교 총본산 태고사 대웅전(현 서울 조계사 대웅전) 불화를 조성하는 등 30대 중반에 대규모 불사를 주도하는 반열에 올랐다.

3부 '대금어의 길'에서는 일섭이 40~50대에 조성한 대작들을 소개한다. 이 시기 일섭은 많은 후배와 제자들을 이끌고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

4부는 '장인에서 예술가로'라는 주제다. 근대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제자 양성에 힘쓴 일섭의 면면에 초점을 뒀다. 만년의 일섭은 불교미술단체 설립과 공모전 출품, 저서 출간 등 불교미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에 이번 전시에서는 불교적 도상에 충실하면서도 재료와 기법을 탈리한 엘리트 작가의 팔상도, 대리서 조각가의 불상, 칠 조각가의 사천왕상 등 현대 작가들의 기발한 불교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전시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사)동악미술사학회(이사장 정우택)와 공동으로 18일 오후 3시부터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송광사성보박물관 신은영의 '금융 일섭의 '연보'와 불교예술운동'이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최영(동국대), 김현중(불교중앙박물관), 최선일(문화재청), 김영희(국립광주박물관)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김승희 국립전주박물관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무료관람. 문의 062-570-703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판넬 위 빛의 변주

우제길 미술관 6월 30일까지 '흔적전 시리즈 I'

'빛'을 주제로 작업하는 우제길 작가는 30여년 전, 늘 하던 캔버스를 벗어나 작업하기 위해 또 다른 소재를 찾아나섰다. 당시 대동고 인근 고물상에 들렀다 발견한 게 컨테이너에 실을 물건들을 넣었던 낡은 나무 박스였다.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주소와 이름, 통관을 허락하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 박스들에는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누군가의 삶의 흔적처럼도 보였다.

그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발송용 날인이며 못 자국들, 나무의 나이테, 그리고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철판 조각들과 낙서 등의 흔적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포질을 한 낡은 박스에 탕화 기법의 호분가루와 마포천이 입혀지고 그 위에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인 '빛' 작업이 더해지면서 작품은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돼 갔다. 어둠과 밝은 빛의 조화, 다양한 색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빛'이 투박한 나무상자와 합쳐지면서 전혀 다른 느낌을 발산했다.

'흔적전 시리즈 I -판넬 위 빛을 올리다'(6월 30일까지 광주시 동구 운림동 우제길 미술관)는 나무 박스 작업을 비롯해 90회가 넘는 개인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전시하지 않았던 작품 17점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우 작가는 이번 판넬 작업을 출발점 삼아 앞으로 드로잉, 아트상품 등 다양한 테마로 '흔적' 시리즈 전시를 이어가며 작품 세계를 집약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접하는 작품은 작가가 고 3 때 유희로 그린 '자화상'이다. 이어 나무박스에 작업한 다양한 '빛' 시리즈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1991년 작인 'Work91-W-3'은 박스 위에 자유롭게 붙인 신문지와 DMZ라는 붉은 글자, 그라디에이션을 준 푸른 빛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1988년 작업한 또 다른 빛 시리즈는 군부대 옆 오물 처리장에서 주운 탄약박스가 캔버스 역할을 대신하며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밖에 운림동 한 액자 공장의 작업대를 이용한 작품,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린 판넬을 수습해 이어붙인



'Work91-W-3'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우 작가는 "1970년대 중반 정영렬 선생에게서 5년 주기로 그림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려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늘 새로움을 찾고 변화를 주기 위해 열정적으로 변화를 모색해 온 것 같다"며 "기존 작품들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작품들을 마주하며 또 다른 도전의식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우제길 작가는 오는 12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문의 062-224-66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민족미술인협회 '30년 오월전 학술토론회'

18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광주민족미술인협회가 주최하는 '30년간의 오월전 작품-발굴·조사 및 1차 학술토론회'가 18일 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광주민족미술인협회는 민족미술의 정체성과 진보적 리얼리즘을 연구·실천하는 단체로서 30년 동안 '5·18광주민중항쟁 기념 오월전'을 해마다 개최해 왔다.

오월전 30년을 결산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

론회에서는 박철우 조사사업단장과 최병진 사업기획팀장이 '발굴·조사의 의의와 실천'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 광주미술인공동체(이하 광미공) 대표를 역임한 조진호 광주시립미술관장이 '오월전의 태동에 관하여'와 정희승(광미공 10기 회장) 작가가 '오월거리전과 불로동 작업실 이야기'에 대해 구술한다. 또 허달용(광미공 11기 회장) 광주민예총 회장은 '광주지역 오월 관련 문예창작물 발굴·조사·실태'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문의 010-6712-547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06 오월전 시민광장 조각보

'제6회 담양송순문학상' 작품 공모

담양군과 송순문학상운영위원회는 가사문학의 대가 면양 송순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제6회 담양송순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시(시조 포함), 소설, 어린이 문학(동시, 동화 포함), 수필, 희곡으로 작품은 담양을 소재로 하거나 담양 관련 인물 등과 관계된 미 발표작 또는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창작품(2016.4.17.~2018.4.16)이어야 한다. (운문은 최소 10편 이상, 단편소설은 최소 1편 이상 담양 소재 작품이어야 한다.)

신인 또는 기성작가 모두 가능하며 응모 기한

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심사 결과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개별 통지된다.

상금은 대상 1명에게 20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500만원이 지급되며 작품 수준이 미달 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작의 지적재산권은 시상일로부터 2년간 담양군에 귀속된다.

응모작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1-380-280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내 집같은 편안함!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고가의 여행대 휴식을 한 차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유 오찬 정식 새아름 위한 명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1등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 고성과 함께 지켜온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